

與 “국익 지킨 실용외교” vs 野 “시한 쫓겨 많이 양보”

관세협상 타결 정치권 반응

민주 “국익중심 실용외교 옳았다” 환영

국힘 “사실상 손해…내용 아쉬워” 질하

여야 정치권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하며 국회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정재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 말리는 외교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끌어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노심초사 지켜본 국민께도 감사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따라 협력할 부분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후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뤄낸 성과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대해 “사실상 손해”,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가가 낮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천억달러 등 4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 낮춰야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3천500억달러로 조성될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두고도 “일본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EU는 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20% 수준”이라며 “산술적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고위공직자 대상 특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호우피해 복구비 자치구 긴급교부

정부 재난대책비 19억9천만원 배정

북구·광산구 지원 응급복구율 70% ↑

광주시는 31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배정된 재난대책비 19억9천만 원을 자치구에 긴급 교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30일 광주를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 총 246억원의 재난대책비를 긴급 편성해 이 중 광주시에 19억9천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교부는 예년과 달리 피해 규모 확정 전 지급

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 현황과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북구에 15억7천만원을, 광산구에 4억2천만원을 우선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침수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복구 설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긴급 교부 외에도 응급복구비 1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198천만원을 자치구에 조기 지원해 실질적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은 지난 17일 하루에만 426.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989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7월30일 기준 광주지역 피해는 사망 2명, 이재민 286세대 416명, 시설 피해 3천407건(공공 410건, 민간 2천997건)으로 집계됐으며 응급복구율은 70.17%다.

광주시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 정비 조사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추가 재정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근본적 복구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조계원 ‘여수섬박람회’ 지원협약 전인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문화체육관광위·사진)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견인하며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섰다.

조 의원은 31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섬박람회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



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섬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조계원 의원은 “K-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문화 자원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우리의 섬·해양 자원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K-섬 관광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협약은 섬과 해양, 그리고 관광 분야에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를 계기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섬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특검, 오늘 오전 9시尹체포하러 간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문홍주 특검보 집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각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5억
- 5) 드라이브스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0억(용자75억) 현금15억 인수 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